인터뷰

미국의 5年間 계란생산비 겨우 2.5% 상승

— 미국양계경영전문가 Robert. D. Sparboe 씨 —

미국의 저명한 양계경영인 Robert. D.Sparboe 씨가 미국사료곡물협회(지부장 박영인)의 초청으로 4월 9일 내한하여 13일까지 체류하였다.

스파보씨는 6.25 한국 동란당시 미군장교로 한국전선에 파견된일도 있는 등 우리나라와는 인연이 깊다고 한다. 氏는 또 12일 롯데호텔 에메랄드홀에서 세계가금학회 한국지부 및 영양사료연구회가 공동주최한 세미나에서 養鷄經營發展戰略에 대해 강연했다.

이 세미나에 앞서 스파보씨는 USFGC의 민병열차장의안내로 본회를 예방하였는데 최근의 미국양계현황을 묻는 기자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.

79년도 스파보씨가 경영지도를 하고있는 몇 개농장의 예를 보면 계란 한다스(12개)생산비는 40.32₡인데 판매가격은 47.87₡로 7.55₡의 수익을 올린 결과가 된다고 한다.

74. 10. 1부터 75. 6. 30까지의 계란 12개생산비가 45₡였는데 7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생산비는 46.17₡로 지난 5년간 불과 2.5%밖에 생산비가 오르지 않았다고 하며 1974년도에는 대부분의 양계장이 적자를 보았고 그 후는 계속 흑자경영을 해왔는데 80년대는 74년도와 같이 수익이 낮아질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.

현재 생산비를 절감하여 경영을 매우 잘하는 사람 들끼리 모여 서로의 기술정보를 교환하고 더욱 생산비를 절감하고저 협회를 만들려고 시도하였으나 각 농장마다 경영기술의 비법을 알으켜 주지 않아 실패하였다.

현재 미국의 채란양계는 점점 대규모화 하는데 현재는 45개 농장이 전체의 35.5%를 기르고 있으나 90년대에는 이들 45개의 농장에서 전체의 90%에 달하는 닭을 사육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. 또한 Sparbo 씨는 남보다 우수한 경영으로 생산비를 절감하는 길만이 소득을 증대시키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하였다.